

【 특 집 】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변형,  
리후이잉의 『萬寶山』 읽기

김 창 호\*

┆ 차 례 ┆

1. 머리말
2. 역사적 사실과 소설의 진실
3. 문학적 변형의 원인과 평가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중국 작가 리후이잉의 《만보산》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의 관계를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설 《만보산》은 1931년 여름 한중농민이 장춘 근교의 만보산 일대에서 수전개발과 관련하여 충돌한 사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실제 사건과 달리 일제와 기층 권력에 맞서는 한중농민의 연대라는 문학적 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등단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길림 출신인 작가는 중학교 졸업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공부를 계속하지만 상하이사변 발생으로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자 문학을 도구로 한 항일운동에 참여한다. 그는 첫 번째 항일 단편소설인 《마지막 수업》을 발표하고 이어 장편소설 《만보산》을 발표한다. 일본에 의해 고향이 함락된 동북출신의 작가들은 항일과 더불어 실항의 고충과 귀향의식 등을 묘사하고 있지만, 리후이잉의 경우 등단과정에서 좌련의 기관지 《복두》의 편집인이자 공산당 계열의 중진작가인 덩링의 지지와 영향을 받았

www.kci.go.kr

\* 여주대학 관광중국어과 강의전담 교수

기 때문에 초기 작품인《만보산》의 경우 작가 본인의 고유한 성향과 더불어 덩링의 문학관이 함께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만보산 사건, 역사사실, 문학진실, 한중농민, 동북작가, 항일소설

## 1. 머리말

1940년 만주국 수도 新京에 도착한 상허 이태준은 만선일보에 근무하는 지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조선농민의 이주현황을 직접 보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이에 지인은 이민촌 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소개한다. 현지인은 ‘만주에서 가장 오랜 편이요,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요, 가장 먼저 조선인의 손으로 큰 수로가 황무지를 관류하게 된 데가 만보산 일원인데 만보산의 여러 부락 중에도 신경서 가기 편리한 곳은 ‘장자위후(姜家窩堡)’라는<sup>1)</sup> 곳이라고 말한다.

당시 재만조선인들에게 만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된 사건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만보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사건은 1931년 7월 長春 근교의 萬寶山 지역에서 수전개간을 하려는 조선농민과 이를 저지하려는 현지인인 중국농민과의 충돌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만보산 일대의 토지를 임차하고 조선농민을 고용한 ‘長農田稻公司’라는 회사의 배후에 재장춘일본영사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더 나아가 수로준설 과정에서 조선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일본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사건의 중심은 수전개발을 둘러싼 한중농민의 마찰에서 벗어나 중일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반화교 탄압운동이 전개되어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만주에서는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지만, 다행히 각국의 교섭과 자체요청으로 더 이상 진전되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일본의 만몽에 대한 야욕과 전략이 노출되었고, 동북아 민족주의의 모

1) 이태준, 1989, 『만주기행』, 소재영 편, 『간도유랑 40년』, 조선일보사 출판국, 337쪽.

순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사건의 중요성 때문일까? 이해 당사국의 작가들은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만보산 사건을 재현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후이잉(李輝英)의 장편소설 『萬寶山』(1933)이외에도 사건 당해 10월 일본의 농민작가 이토 에이노스케(伊藤永之介)가 발표한 단편소설 『萬寶山』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보다 늦은 1940년대 이후 3편의 작품이 발표되었는데, 안수길의 『벼』(1941), 이태준의 『농군』(1943), 장혁주의 『개간』(1943)이 직간접적으로 만보산 사건을 그려낸 작품들이다.<sup>2)</sup> 이들 작품들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환경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대 동아시아 문학사의 독특한 모델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쓰여진 소설, 즉 역사소설은 독자나 비평가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준다. 이는 주로 역사적 사실(fact)과 소설적 허구(fiction) 사이의 경계에 관한 문제인데, 독자는 소설이 그려낸 역사적 사건을 진실이라고 믿기 쉬우며, 비평가들 또한 소설의 허구성이 사건의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 때문이다.<sup>3)</sup> 중요한 것은, 허구에서 출발하는 소설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역사적 진실은 밝혀내야 한다는 점이다.<sup>4)</sup>

2) 한국작가의 경우 같은 민족이면서 모두 식민지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안수길은 ‘만주국’에서, 이태준은 조선에서, 장혁주는 일본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창작환경은 그들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안수길의 작품은 민족모순을 극복하고 생존하고 정착하려는 조선농민의 강인한 생명력을 그려내고 있지만, 이태준의 경우는 작가 자신이 직접 만보산 일대를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의 한계와 이에 따른 논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장혁주의 경우는 대동아공영권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안수길의 『벼』는 수전개발을 둘러싼 한중 농민의 대립과 함께 학교설립 등 만주이주 한인의 전반적인 문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만보산 사건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는 논란이 있지만 소설의 줄거리로 볼 때 본 사건에서 모티브를 취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3) 중국 고전 나관중의 『삼국연의』는 正史와 소설의 관계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4)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동재, 2004, 『한국현대역사소설론』, 『한국근대문학연구』(제5권 제2호)와 이숙, 2010, 『픽션소설 연구 서설』, 『현대문학이론연구』(제40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만보산 사건을 소재로 한 동아시아 소설 중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가장 근접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는<sup>5)</sup> 리후이잉의 장편소설 『萬寶山』을 통해 사건의 사실과 소설적 허구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고 작가가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역사의 사실과 소설의 진실

먼저 만보산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국제연맹에서 파견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이른바 ‘리트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Sino-Japanese Dispute)’를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중개인 郝永德이 1931년 4월 16일 부의 계약에 따라 중국인 지주로부터 토지 1구역을 자신이 경리로 있는 長農田稻公司를 위해 임차하였다. 그 계약조건에는 ‘현장이 그 계약 조건의 사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무효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郝永德은 현 정부의 승인 없이 빌린 토지 1구획을 조선인 단체에 재임대했다. 이 제2계약에는 ‘재임대에 대해서는 공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농민들은 중국 관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2계약이 체결된 후에 곧바로 수 마일에 이르는 관개용수로와 부속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이통허에서 물을 끌어서 논농사에 이용하려고 했다. 이 수로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중국인의 농지의 넓은 범위를 가로질러서 조성되었다.

중국인 농민들은 수로가 자신들이 소유지를 가로지른 문제에 대해 당국

5) 만보산 사건을 묘사한 한중일 소설에 대한 비교연구에는 김창호, 2004, 『동아시아 ‘타자’ 형상 비교연구 - 만보산 사건을 수용한 한중일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31호와 김호웅, 2009, 『만보산 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 『만주국』과 동아시아문학』(제5차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이 있다.

에 항의했고, 아울러 자신들의 편에 서주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중국관헌은 경찰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선인에게 당장 개착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토지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재장춘 일본영사가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관 경찰을 보냈다. 중국과 일본 대표간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이해차이로 해결을 보지 못하자 양 측에서 더 많은 경찰을 보내 절충을 꾀했다.

6월 8일 양국은 각각 경찰대를 철수시키고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공동조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였다. 얼마 후 조선농민들은 일본 경찰의 원조를 받으며 수로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7월 1일에 중국 농민 400여명은 농기구나 창으로 조선인을 내쫓고 수로를 파괴하지만 일본 경찰은 중국인 농민을 몰아내고 조선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발포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농민들은 철수하고 조선농민들은 일본 경찰의 주둔아래 수로와 이통허를 막는 보를 완성했다. 7월 1일 사건 후, 중국 지방관헌은 재장춘 일본영사에게 일본영사관 경찰과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를 했다.<sup>6)</sup>

그러나 소설의 내용은 상술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면서 실제적 사실과는 상이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설은 척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3월의 만보산 일대의 자연과 농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시작한다. 어느 날, 일제의 앞잡이 郝永德이 일본 특무 나가가와와 결탁하여 만보산 일대의 토지를 조선농민에게 세를 주면서 이 일대는 근대 동아시아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등장한다. 원주민인 중국 농민들은 눈이 개간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이즈음 이곳에는 처참한 모습의 조선농민들이 계속해서 이주해 온다. 이들은 일제의 꼬임에 속아 온 사람들로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보잘 것 없이 단지 노예와 같

6) 고바야시 레이코, 2011, 「만보산 사건과 리턴 보고서 - 재만 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만보산 사건의 역사적·문학적 성찰』(만주학회 만보산 사건 80주년 학술회의 자료집)에서 인용.

은 생활로서 연명하고 있었다.

중국농민 중에는 조선농민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한편,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상황을 보고하지만 뇌물을 먹은 구역장이 파견한 경찰들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이어 나타난 일본군경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이때, 장춘시에 사는 청년학생 李堯平이 와서 “제국주의에 의해 핍박을 받는 민족들이 단결해야만 비로소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다”며 농민들을 계몽한다. 아울러 그는 데리고 온 고령인 김복을 소개한다. 김복은 네 명의 형들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일제의 핍박과 식민지의 피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망국노의 설움에 대한 김복의 설명을 들은 중국농민들은 점차 자신의 임무를 깨달고 무장봉기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의한다. 그들은 수로를 메우기 위해 농기구를 들고 수로공사 현장으로 갔으나 중국과 일본의 군경들에 의해 저지당하자 대항한다. 한편 조선농민들도 김복을 중심으로 같은 민족을 착취하는데 앞장 선 조선인 감독들과 대치한다. 이에 중일 군경들이 무력으로 진압하자 한중농민들은 ‘전 세계 혁명 성공 만세’를 외치면 산을 향하여 퇴각한다.

사건과 소설은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실명을 쓰고 있다는 점, 계약서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중농민의 모순이 연대로 전환된 것이나 李堯平이나 金福 등 허구적 인물에 의해서 중국농민이 각성된 것, 그리고 중국과 일본 경찰의 결탁 등은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투영된 허구적 변형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은 작품이 허구적 내용을 가미하여 사건을 왜곡시켰다는데 있는 아니라, 작가가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위해 사건을 변형했는가 하는 소설의 진실에 있다.

### 3. 문학적 변형의 원인과 평가

리후이잉의 작품이 1931년 만보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변형을 가진 이유는 먼저 작가의 등단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11년 吉林省 吉林縣(현 永吉縣)에서 태어난 리후이잉은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마친 후 퇴직하는 스승을 따라 친구와 함께 上海로 가서 1927년 上海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1929년에는 上海私立中國公學大學에 입학한다. 그가 21세가 되던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제에 의해 고향이 함락되자 상하이 학생 반일시위에 참가하는 한편, ‘일본 제국주의가 동북에서 우리 약소 민족을 압살·도살·기만하는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1979년 자신의 생활과 창작 경험에 대해 구술하면서 자신의 창작동기가 반제국주의를 통한 애국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는 1931년 ‘9·18사변’ 이후 하룻밤 사이에 심양, 장춘 두 도시를 잃은 것에 분개하고, 또 순식간에 전체 동북삼성의 광대한 토지를 잃고 3천만 인민이 노예가 된 亡國亡省의 통한의 상황하에서 붓을 잡고 글을 썼다. 손에 촛철도 없이 실지를 회복하고 국치를 설욕하는 일을 하기는 어려워 붓으로 妖氣를 쓸어내는 것이 바로 나라에 보답하고 잃은 땅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에 희망을 기탁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결코 뜻을 세워 한 사람의 작가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sup>8)</sup>

이러한 의지는 창작으로 이어져 그해 12월 동북을 배경으로 한 항일소설 『最後一課』라는 단편소설을 집필하여 이듬해 1월 당시 공산당 계열의 여성 작가 丁玲이 주편을 맡고 있는 좌익작가연맹(이하 좌련)의 기관지 『北斗』에 발표한다. 고향상실의 비애는 1932년 1월 제1차 상하이사변으로 학업을 그만두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더욱 깊어진다. 프랑스 조계지역으

8) 李双慶, <李輝英先生談生活與創作經驗>, 香港『開卷』雜誌, 1979年 4期,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사, 270쪽에서 재인용.

로 피난한 그는 덩링의 소개로 좌련 소속의 동향인 작가 穆木天 등을 만나면서 좌련의 일원이 된다. 그는 같은 해 3월 덩링으로부터 항일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을 써보라는 권유가 담긴 편지를 받고 만보산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을 두 달 만에 탈고한 후 덩링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이듬해 3월 上海湖風書店을 통해 출판한다.<sup>9)</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덩링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별 연고가 없는 타향에서 문단에 등단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동북출신의 청년작가에게 좌련과 덩링은 커다란 의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작가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좌련과 덩링의 문학관이 강하게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소설에는 상당부분 만보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는데,<sup>10)</sup> 이는 소설의 즐거리와 특히,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李堯平이라는 대학생의 연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작가가 작가의 주제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가공인물로 그의 입을 통해서 만보산의 중국농민들은 각성되고 주체화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후일 평론가들이 ‘인물들이 강개하고 격앙된 선전 마이크로 변하여 항의와 선전이 예술적 매력을 함몰시키고 있다’<sup>11)</sup>고 평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리후이잉과 덩링의 문학세계는 무한함락이후의 두 작가의 행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리후이잉의 경우 국민당을 따라 중군하면서 重慶, 北京 등지에서 항일전쟁에 참여한 후 광복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교편을 잡았지만 1950년 홍콩으로 건너가 여생을 마감한다. 반면 덩링의 경우는 국민당에 체포되어 주위의 구명활동의 풀려난 후 소비에트 해방구로 건너가 사회주의 혁명문학의 선봉에 선다. 두 작가의 이러한 행보는 그들의 경력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리후이잉의 경우 고향 동북이 일제에 의해 유린되었고, 자

9) 馬蹄疾 編, 1988, 『李輝英研究資料』, 春風文藝出版社, 11~15쪽.

10) 만보산 사건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에 관해서는 손승희, 2003,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동양사학연구』 제83집 참고.

11) 楊義, 1993, 『中國現代小說史(二)』, 574쪽.

신이 공부하고 있던 상하이조차 포화의 연기가 자욱했기 때문에 반제라는 항일 이념이 강하였고, 덩링의 경우는 1931년 그의 남편이 국민당에 의해 처형되었고 스스로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반국민당 정서와 계급 이념이 강했다. 소설은 이 두 이념의 합작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소설의 창작과정도 변형의 원인으로 보인다. 작가의 애향애국의 열정을 감안하더라도 작가가 처음으로 창작하는 253쪽에 이르는 장편을 80여 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에서 자료수집과 구상의 한계를 가늠할 수 있다. 작가는 중학교 졸업 이후 졸업 고향을 떠나 상하이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萬寶山』을 집필할 당시 만보산, 혹은 만주를 방문하여 생생한 체험담을 들은 것이 아니라 상하이에서 접할 수 있는 신문이나 좌편 측, 혹은 공산당의 자료를 삼았기 때문에 창작과정에서도 이들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작품이 사실에 근거하기 했지만 작가가 접한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한정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萬寶山』이 보여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학적 변형은 이후 평론가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역사적 상황과 사실을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현대문학가이자 평론가인 茅盾의 평론은 전자에 속한다. 그는 소설이 발표된 해 8월 ‘만주사변 이전 일제가 동북에 가한 경제적 침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郝永德이 일본인과 결탁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기 이전의 만보산을 ‘낙토’와 같이 묘사하는 등 만보산 일대를 평화로운 지역으로 안일하게 묘사한 것은 커다란 오류’라고 평가하였다.<sup>12)</sup> 이는 일제의 만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작가 리후이잉의 경우 만보산 사건 자체를 강조하고자 하였고, 적어도 어렸을 적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리후이잉의 작품이 ‘폐쇄적 민족주의 시각을 넘어섰지만, 피압박민족연대의 국제주의라는 대전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건의

12) 馬蹄疾 編, 1988, 『李輝英研究資料』, 春風文藝出版社, 189~190쪽.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역사 사실의 왜곡을 통한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에 충실하고자 노력할 뿐이었다<sup>13)</sup>라는 역사학자의 평가도 있다. 이는 소설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이념에 경도되어 또 다른 왜곡을 생산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사건에서 소재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을 사실 그대로 옮길 의무는 없다. 이는 어쩌면 문학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도 작가는 자의적 시선에 의해 재가공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독자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4. 맺음말

만보산 사건을 소재로 한 리후이잉의 장편 역사소설 『萬寶山』은 실제사건의 진행에 따라 서술한 것이나 등장하는 인물을 실명으로 한 것,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 마치 실제 사건을 재연한 듯하다. 그러나 소설은 한중 농민의 충돌이라는 기본적 사실에 대한 서사가 아니라 반제 반봉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연대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소설은 한중 농민간의 모순을 반제반봉건주의라는 중국현대문학의 대주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중 농민과 민족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소설이 예술성이 부족하고 반제반봉건이라는 도식적 색채가 강하다거나 또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였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설은 적어도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중국현대문학사의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작품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동북을 배경으로 한 항일문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19년 5·4운동시기로부터 출발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까지를 시기로 삼고 있는 중국현대문학사에

13) 손승희, 2006, 「소설 『萬寶山』과 萬寶山事件」, 『대동문화연구』제54집.

대해 대부분의 문학사가들은 1927년 국민당의 좌익작가 탄압과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을 획으로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면서, 문학이 구현한 시대정신에 따라 각각 5·4계몽문학시기, 혁명문학 시기, 그리고 항전문학 시기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현대문학의 주류는 1927년 4·27정변으로 촉발된 프로레타리아 혁명문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1930년 상하이에서 좌련이 결성되면서 혁명문학론과 문예대중화론이 문단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사변에 대한 반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며, 항일문학 또한 미비한 상태였다. 『萬寶山』과 함께張天翼의 『齒輪』, 華漢의 『義勇軍』이 湖風創作集으로 출판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었다.

상하이 문단이 함락된 동북에 대해 관심은 만주국 건국이후 당시 동북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탄압과 검열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대거 상하이 등지로 남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일제의 수탈과 저항, 고향상실에 따른 그리움과 계몽 등을 주제로 창작을 하였고 魯迅, 茅盾 등 당시 문단에서 역량 있는 작가들이 관심을 받았다. 문학사에서는 이들 만주사변이후 관내에서 활동한 동북출신 작가들에 대해 ‘동북작가군’으로 부른다. 리후이잉의 경우 만주사변 이전에 이미 상하이에 와 있었기 때문에 사변이후 남하한 작가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변이후 창작을 시작했고 작품의 주제 또한 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북작가군의 일원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리후이잉의 단편소설 『最後一課』나 장편소설 『萬寶山』은 동북작가군의 항일문학의 선봉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14)</sup>

둘째, 『萬寶山』은 중국향토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중국현대

14) 중국현대문학사 전체로 볼 때에 항전문학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보기 때문에 그동안 문학사 기술에서 동북작가군은 마치 경계인과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에서 출판된 문학사를 살펴보면, 동북작가군의 지위와 역할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동북작가군에 대한 연구는 1980년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항일문학의 선성(先聲)’이나 ‘항전문학의 발단’, 그리고 중국현대문학사를 관통하는 전체 ‘반제국주의 문학의 골기(崛起)’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리후이잉의 『萬寶山』은 중국현대문학발전사의 세 번째 단계인 항전문학의 선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사에서 향토소설은 크게 魯迅과 같이 봉건주의에 대한 비판과 계몽을 그린 현실주의적 향토소설과 沈從文과 같이 도시의 죄악과 부패에 반대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린 낭만주의적 향토소설, 그리고 동북과 같이 일제 강점의 현실을 그린 식민주의적 향토소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萬寶山』은 반제와 반봉건은 물론 고향에 대한 향수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향토소설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셋째, 혁명문학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켰다. 1920년 후반이후 중국현대문학의 주류를 이룬 혁명문학론이 소설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로 도시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그린 작품이나, 이른바 ‘혁명+연애’라는 공식의 ‘로맨스적 혁명문학’이 주로 창작되었다. 『萬寶山』은 혁명문학의 배경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중심인물을 노동자에서 농민으로 옮겼으며, 국내적 문제에서 동아시아 문제로 확대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보산 사건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농민충돌에서 야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두 농민집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민족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지만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중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문제가 되었으며, 농민간의 충돌이었지만 이는 농민과 관계하는 중국인 지주(소설에서의 전대인, 혹은 공사감독)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계급문제가 되었다. 특히 그곳이 동아시아 민족주의가 첨예하게 노정된 ‘만주’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리후이잉의 『萬寶山』에 대한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중국현대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학 관계사에도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고바야시 레이코, 2011, 「만보산 사건과 리턴 보고서 - 재만 조선인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만보산 사건의 역사적·문학적 성찰』(만주학회 만보산 사건 80주년 학술회의 자료집).
- 김시준 외, 1999,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사.
- 김창호, 2004, 「동아시아 ‘타자’형상 비교연구 - 만보산 사건을 수용한 한중일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제31호.
- 김호웅, 2009, 「만보산 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 『‘만주국’과 동아시아 문학』(제5차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손승희, 2003,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동양사학연구』제83집.
- 손승희, 2006, 「소설 『萬寶山』과 萬寶山事件」 『대동문화연구』제54집.
- 이태준, 1989, 『만주기행』, 소재영 편, 『간도유랑 40년』, 조선일보사 출판국.
- 이동재, 2004, 「한국현대역사소설론」 『한국근대문학연구』제5권 제2호.
- 이숙, 2010, 「팩션소설 연구 서설」 『현대문학이론연구』제40권.
- 李輝英, 1996, 「萬寶山」 『東北現代文學大系 長篇小說(上)』, 沈陽出版社.
- 馬蹄疾 編, 1988, 『李輝英研究資料』, 春風文藝出版社.
- 楊義, 1993, 『中國現代小說史(二)』, 人民文學出版社.

## ■ 中文提要 ■

## 歷史的事實與文學的真實，李輝英的《萬寶山》讀法

金昌鎬

本文通过李辉英的长篇小说《万宝山》力图证明历史的事实和文学的真实关系。出生在吉林的李辉英，‘九·一八’之前，已在上海公学读书，而由1932年‘上海事变’爆发，不得不辍学，从而以笔武器开始揭露日帝在东北的野蛮侵略和故乡同胞的苦难遭遇。1932年1月，李辉英第一篇抗日题材短篇小说《最后一课》，在丁玲主编的左联杂志《北斗》上发表。《最后一课》发表后，丁玲又约李辉英写一部以东北抗日斗争为背景的长篇小说。他便以“万宝山事件”为素材，创作了长篇小说《万宝山》。万宝山事件是于1931年7月在吉林省长春市郊区发生的一次重大国际冲突事件。长农稻田公司经理郝永德未经当地中国政府批准，将万宝山一带土地转租给朝鲜农民，从而造成中国农民同朝鲜农民之间争水夺地的纠纷。这次纠纷既是日本帝国主义移民政策的直接后果，又是他们寻机制造侵华口实的重要步骤。长篇小说《万宝山》描写了日本驻长春领事田代、警部中川收买汉奸郝永德，成立“长农稻田公司”，勾结长春县地方官吏，借开水田之名，侵占万宝山官荒田，引起农民的坚决反抗。日本警察以此为借口，制造了“万宝山事件”。作品较为成功地塑造了汉奸郝永德及为抗日而团结的韩中农民形象。真实地反映了万宝山这一历史事件的真实，揭露了日本帝国主义的暴行和侵略野心。

关键词：万宝山事件，历史事实，文学真实，韩中农民，东北作家，抗日小说